





### 2012년 임진년 주요 종단 종정스님 신년법어

#### “마음 하나 가지고 새 우주를 지을 것이니”



조계종  
종정 법전

위광威光이 위매임에서 벗어나 만물을 비추니  
귀권貴權은 사라지고 만유는 존귀尊貴함을 얻습니다.  
십방十方은 텅 비어 놓고 낮은 벽락墮落이 없고  
곳곳에서 마치고 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푸른 용龍은 대전세계 밖으로 뛰쳐 나아가고  
사자獅子는 만길 불우리 위에서 소리칩니다.  
하늘과 땅은 환금빛을 이루어 눈앞에서 만 심의 구슬을 쏟아내며  
물이 대밭으로 흐르니 푸른빛이 우러나오고  
바람이 꽃 속을 스치면 향기를 실어 줍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좋은 날을 만드는 묘용妙用이 있으니  
바린 자는 얻고 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복福福을 다스리는 기용機用을 지닌 사람은  
일기일경一機一境속에 무상법리無生法樂을 나눌 것이요,  
본분本分の 철추鐵礎로 원통圓通의 문門을 여는 이는  
마음 하나 가지고 새 우주를 지을 것이니  
비우지 않고는 일체를 포용包容하는 기략機略을 얻을 수 없으며  
낮추지 않고는 바다 밑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치우치면 일승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융통하면 결립 없는 자재를 얻을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날의 기쁨이 눈앞에 있으니  
만물은 응애애이 없는 대시문大施門을 열고 있네.

#### 불법을 체로 하여 생활하자



진각종  
총인 성초

임진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법신대일(法身大白)의 서광(曙光)이 사바세계에 총만하고  
진각행자와 모든 불자들에게 서산(瑞相)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동해 진각성자의 서기(瑞氣)가 용트림하여 하늘을 오르고  
동쪽 대환(大轉)의 정기(精氣)가 한강의 불가사의를 이루고 있으니 불법(佛法)의 수지(受持)와 육자진언 열승의 공능(功能)입니다.  
탐욕으로 진심을 일으키고 어리석음이 이를 부추겨서 괴로움이 따르는 예토(穢土)라 하더라도 불법(佛法)을 체(體)로 삼아 새간을 다스리면 원래 안락의 정토(淨土)가 그곳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심지(心地)를 두텁게 하여 종지(宗旨)를 지키고 공(空)을 앞세우며 정도(正道)로 걸어 가면 이웃 대중도 그 길을 따라서 종교 정치 사회 등의 갈등과 부조리를 극복하면 세속의 사사(私私)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희망한 임진년의 햇살이 밝고 따스하게 세상의 만상을 평화롭게 살려가듯이 심인법어 이 못 중생의 아픔을 아무만지며 더 넓은 세상에 안온자가 되도록 정진합니다.

#### 범부와 성인, 정과 이 따로 없습니다.



태고종  
종정 혜초

壬辰年 범부와 山門을 여니  
有情無情과 山河草木이 全體의 法體로 佛智境界를 삼습니다.  
諸法의 空相은 生도 아니고 滅도 아니며  
世間上에 常主하며 모든 法位에 머문다 하였으니,  
본디 凡夫와 聖人, 情과 智가 따로 없습니다.  
무릇 法界는 圓寂한지라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으며, 다만 情이 있고 헤아림을 두기 때문에 일체중생이 거저므로 그 이됨을 漸次합니다. 情이 망하고 헤아림이 끊기면 무슨 이됨을 능히 세울 것입니까?

소리를 듣다가 문득 道인을 깨닫지만 道에 어찌 소리가 있으며,  
색 빛을 보다가 문득 마음임을 밝히지만 마음에 어찌 색 빛이 있으리요.  
故人이 이르시도,  
有心하면서 平等함이 無心하면서 平等하지 아니함만 못하니라 하였으니  
을 한해는 사바세계의 일체중생이 일체중생이 한분도 빠짐없이 無心함이 되어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祈願합니다.

三界 熱惱 猶如火宅(삼계는 뜨거워서 화택과 같으니)  
其 忍海 留 甘受 長 苔(무엇을 애착하여 미련을 들까)  
欲 免 輪 轉 莫 若 求 佛(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若 欲 求 佛 佛 卽 是 心(불성을 찾는 것만 갖지 못하리)  
心 何 遠 覓 不 離 身 中(불성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마음)  
色 身 是 假 有 生 有 滅(육신은 거짓이어서 생멸이 따르지만)  
眞 心 虛 空 不 斷 不 變(진심은 허공처럼 영원한 존재일세)

#### 은누리에 자비광명이 중만



원효종  
종정 김벽송

은누리에 극심한 경제력 고통을 겪는 이럴할 때 일승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충실하여 하며 중생들이 다 같이 절해쳐 나가야 합니다.  
아집과 이기심의 마음을 비우시고 참화의 구원할 때 부처님의 크신 광명 항상 나부시고 사랑 비원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더불어 중생들을 구제가호하여 줄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비로소 나의 행복과 가장 안위의 소원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常放大光明 크신광명항상 나부시고  
慈悲愍衆生 사랑비원으로 중생들을 가엽게 여기시고  
照耀大千界 은 우주를 밝게 비추시는도다  
普捨濟含識 기쁨광명으로 중생을 제도하도다

#### 평등한 그 자리 가고 음이 없으라



천태종  
종정 도용

信心不二 二信心(신심불이불이신심)  
眞如法界 無他無自(진어발계무타무자)  
平等本際 非去非來(평등본계비거비래)  
一心妙顯 自照靈然(일심묘현임심도원자조영연)  
믿음은 가르는 것이 아니요, 가르치 않음이 믿음이니  
참스러운 세계는 남도 없고 나도 없으리라  
본래 평등 그 자리에는 그 고음이 없으니  
동글고 묘한 이 마음의 신령스런 비춤 보라.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날려도  
구름 위에 늘 빛나는 태양을 보아라.  
마음의 그드머리에 휘둘러 한탄하지 말라.  
풍운조화 그 속에는 의의주가 있느니라.

#### 용처럼 웅비하는 한 해가 되시길



일봉선교종  
종정 정각

法潭呼吸 新清明 噴出巖端 翠霧煙  
법담호흡 신명조 분출비단 취무연  
願此霧煙 履三界 變成法雨 灑人天  
원차무연 역삼조 변성법우 세인천

정명한 새해아침에 法潭이 호흡하니  
코끝에선 푸른 안개가 연기처럼 뿜어낸다.  
이 자옥한 안개 삼계를 덮어 날랐으니  
甘露의 法雨를 人間에게 자옥이 내려주소서.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듯이  
고정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신묘년을 보내고 임진년 용의 해를 맞이하여  
불자들은 용처럼 웅비와 비상,  
용이 갈구하는 최후의 목표와 희망은 안개를 박차고  
승천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 성불 합시다.

## 임진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원  
중앙총의 회장

하루하루가 시간의 연속이고 반복 속에서 한해가 가고 새로운 달력을 바꾸어 달아올 하는 새해 새날.  
뒤 돌아 보면 항상 아쉬움과 후회만 이 남는 것은 잠깐 것으로 얽히고설킨 참아야 할 고난의 시간들을 붙잡을 수 없었던 때문일까요?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바람(念願)이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 보면 항상 아쉬움과 후회만 이 남는 것은 잠깐 것으로 얽히고설킨 참아야 할 고난의 시간들을 붙잡을 수 없었던 때문일까요?

어떻게 합니다.  
넘치지 말고, 의리와 신의를 지키고, 은혜를 알고 고맙고, 임을 조심하여 맡수를 즐기고, 자제(自制)하고 삼가 할 줄 알고, 쓸데 없는 욕심을 줄이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빗지지 말고, 체면 차리고, 사양 할 줄도 알고 등 등.

#### 참된 마음(심)으로 행(행)함

어김없이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떨쳐 버리고 희망의 새날을 맞으시길 기원(祈願) 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더 나은 내일을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기를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업이 모이면 복이 되고 악업이 통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됨이네요.  
그만하고 후회 없이 복되는 일 하시고 좋은 씨(진지,인)를 심어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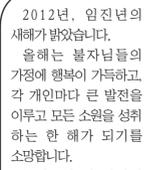
지강  
부산 경남 교구장

흑룡(黑龍)의 힘이 솟을 치는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상주불변(常住不變) 하는 법계(法界)속에 육대(六大), 사만(四曼) 으로 이루어진 만유(萬類)의 상(相) 이 한무 불화(不和)와 분열(分裂) 을 화합(和合)하는 육화정(六和敬)으로 다짐해봅니다.

1. 계화동수(戒和同修): 지계로 화합할지니 함께 닦고,  
2. 견화동혜(見和同解): 바른 견해로 화합할지니 함께 깨닫고,  
3. 이화동균(利和同均): 이익으로 화합할지니 균등하게 나누고,  
4. 신화공주(身和共住): 몸으로 화합할지니 함께 머무르고,  
5. 구화무쟁(口和無爭): 입으로 화합할지니 다투지 말고,  
6. 의화동사(意和同事): 뜻으로 화합할지니 함께 살길지니라.

#### 용맹정진 수행으로 근심걱정 벗어 버리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보배(寶物), 우차여의주(遇此如意珠) 이 현뎀.  
현재는 가장 중요하고 안위(安危)는 지척에 있다 했고 달마 대사로 부처님도 수행으로 깨달았다 했습니다.  
수행(修行)이 없는 빈 몸은 길어도 이익이 없고 덧없는 목숨은 아껴도 보존하지 못한다 일생이 얼마라고 뒤지 않고 방종하라.  
누워 있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여라.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의욕만 앞세운 바램보다는 용맹정진 수행으로 근심걱정 벗어 버리면 나의 자성에도 식광(識光)이 빛날 것이니 금년 한해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가정경마다 평안 하시기를 발원 합니다.



법우  
충청 전라 교구장

2012년, 임진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불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각 개인마다 큰 발전을 이루고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각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고 살림 살이가 한결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끊임없는 수행과 자기 성찰로써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심과 원망심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커집니다.  
반대로 환희심을 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면 자연히 원망심과 진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거

#### 여유롭고 부드러운 삶을 위하여

좋은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갑시다.  
금년은 용(龍)의 해입니다. 용은 여의주를 지니고 비바람의 조화를 부리는 상상의 동물로서 상서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동물인만큼 불자님들의 모든 가정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고 행복과 지혜가 많이 일어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과 지혜는 여유롭고 부드러운 삶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더욱 부드럽게 대하였으면 합니다. 부드럽고 순한 마음에서 진심과 원망심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를, '일체중생 보기를 그 자식과 같이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과 번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약한 마음으로 못중생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땅히 화내거나 원한을 품는 일이 없고 오직 경양과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며, 일체중생에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서 항상 즐겁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나혼자만의 성불에 있지 않습니다. 지타 모두가 성불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움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율 한 해 동안 모든 일을 소연성취하시고 수승한 불법(佛法)의 은덕(恩德)을 일으키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음마나반매를.

희망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복이란 물집이난 몸으로 남의 고통과 괴로움을 달아 주는 행위일 것이다.  
자기 마음속에 선(善)함이 있으면 행복(幸福) 할 것이고 선근(善根)이 쌓여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발바등 쳐도 잘 살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지공  
대구, 경북 교구장

다르지 않다는 동채대바 사상이 간절 하다면 가난을 벗어나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어렵더라도 몸으로마음으로 배울고 살아야 가난을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남에게 배운 만큼 선업이 쌓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선업이 없으면 잘 살 수가 없다.

#### 복(福)을 짓고 살자

자신이 한 행위를 되돌려 받는 것이다.  
선업(善業)은 과거 알게 모르게 지은 업으로 크나큰 재난을 막기도 하고 많은 선연을 만나기도 한다. 선(善)이 밝음이라면 악(惡)은 어두운 이다. 밝음 있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선을 지으면 복 받고, 악을 지으면 죄 받는 것을 확실한 일면서도 누굴 풍찬의 악인 습으로 고통으로 산다. 마음이 어둠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남이 내 몸과

그러므로 마음으로 뒤고 지혜를 밝혀 선업을 짓는 것만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재물은 짐짓 쓰면 화가되어 불행이 오지만 선업은 즐거움 행위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오는 것이다. 선업(善業)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행 할 수 있는 최상의 줄고있고 즐거운 행위 이므로 부지런히 실천하여 임진년 한해 불보전의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즐거운 행위를 실천하여 나날이 복된 날이 되소서.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도님들의 가정에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합니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서을 시청 앞에는 사랑의 온도계가 등장합니다.  
올해는 모두 2180억원을 목표로 모금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시정  
부산 경남 교구장

이웃과 국가를 도우는 것은 우리 종교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지혜 이자 육행의 하나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남을 도울 때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들여내지 않는 '무주상보시'가 최고라 하였습니다. 요즘은 뉴스에는 거금을 아무도 모르게

#### ‘무주상 보시행’을 실천하는 한해가 됩시다.

우리 주위에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법설법 제157페이지 제3절 보시와 법시, 1.보시(보시)에는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식사와 재시와 법시니라. 식사는 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요, 재시는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국가 사회의 복지사업에 봉사하는 것이요, 법시는 모든 중생을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것이니라. 재시가 식시보다 낫고 법시가 재시보다 나은 것이므로 가장 복이 되고 공덕이 큰 법시를 힘써야 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조님의 법설대로  
쾌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 기도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옮겨 사용하여 일체제안을 물리치고, 모두가 무량한 복덕의 문으로 나아갑시다. 을 한해는 우리주위를 잘 둘러보고 보시행을 실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임진년 교도여러분들의 가정에 법신 비모자나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총만하시고 수행정진에 아무런 장애가 없기를 다시 한번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음마나반매를.

##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관정사

주교: 정사 인 선  
전수 정계월  
☎ (02)736-0950

### 밀인사

주교: 정사 원 당  
전수 묘심해  
☎ (02)762-1412

### 법천사

주교: 정사 시 정  
전수 원만원  
☎ (031)751-8685

### 벽룡사

주교: 정사 법 일  
전수 자행정  
☎ (02)889-0211

### 총지사

주교: 전수 선도원  
정사 화 령  
정사 법 경  
정사 록 경  
전수 법수연  
전수 덕 현  
☎ (02)552-1080

### 실지사

주교: 전수 연등원  
☎ (02)983-1492

### 정심사

주교: 전수 진일심  
☎ (02)433-0374

### 지인사

주교: 정사 지 성  
전수 승효제  
☎ (032)528-2742

### 시법사

주교: 전수 환수원  
☎ (032)522-7684

##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만보사

주교: 정사 승 원  
전수 묘원화  
☎ (042)255-7919

### 백월사

주교: 정사 법 우  
전수 인지심  
☎ (042)527-5470

### 법황사

주교: 전수 해인정  
☎ (062)676-0744

### 혜정사

주교: 정사 서 령  
전수 해원정  
☎ (043)256-3813

### 흥국사

주교: 정사 지 정  
☎ (063)224-4358

▶▶▶ **"편집위원이 가다"**



# 임진년(壬辰年) 미르(龍) 하늘을 날다.

미르(용,龍)의 해가 밝았다. 2012년은 육십갑자 중 임진년(壬辰年)으로 10천간 중에서 '검은색' 을 나타내는 임(壬)자와 12간지 중 '용' 을 의미하는 진(辰)이 결합한 흑룡의 해이다. 몇해 전 황금돼지해를 맞아 출산 붐이 일어난 적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 발 맞추어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있다. 편집위원회는 용의 해를 맞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용, 꿈을꾸다' 을 특별 취재하였다.

## 상상의 동물 '용'



용은 상상의 동물이다. 고대 이집트·바빌로니아·인도·중국 등 이른바 문명의 발상지 어디에서나 이미 오래 전부터 상상되어온 동물로서 신화나 전설에 등장한다. 용은 어디까지나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민족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나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그 모습의 표현 역시 차이를 보여 왔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용은 중국인들이 상상하였던 용의 모습을 전해 받았다.

중국의 문헌인 '광야(廣雅)' 의주(翼條)편에는 용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놓았다. "용은 인충(麟蟲) 중의 우두머리(長)로서 그 모양은 다른 짐승들과 아홉 가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즉, 머리는 낙타와 비슷하고, 뺨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덜미는 뱀, 배는 큰 고래,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주먹은 호랑이를 닮았다. 아홉 가지 모습 중에는 9·9 양수(陽數)인 81개의 비늘이 있고, 그 소리는 구리로 만든 쟁반(銅鑊)을 울리는 소리와 같고 입 주위에는 긴 수염이 있고, 턱 밑에는 명주(明珠)가 있고, 목 아래에는 거꾸로 박힌 비늘(逆鱗)이 있으며, 머리 위에는 백산(白山 : 공작꼬리무늬같이 생긴 용이 지닌 보물)이 있다."

이처럼 각 동물이 가지는 최고의 무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상상된 용은 그 조화능력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믿어졌으며, 특히 물과 깊은 관계를 지닌 수신(水神)으로 신앙되어왔다. 중국민족이 상상해온 이와 같은 용의 모습이나 능력은 그것이 거의 그대로 우리 민족에게 수용되었다. 남아있는 용의

조각품이나 그림에서 위와 같은 용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용의 순수한 우리말은 '미르'다. 이 '미르'는 물의 옛말 '물'과 통하는 말인 동시에 '미리'의 옛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이다. 실제로 용이 등장하는 문헌·설화·민속 등에서 보면 용의 등장은 반드시 어떠한 미래를 예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과거불을 비바사불(毘婆尸佛), 현재불을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그리고 미래불을 미륵불(彌勒佛)이라 하는데, 여기서의 미래불인 '미륵' 역시 '미르'와 통한다. 이외에도 용의 새끼를 뜻하는 '어무기'도 우리말이다.

## 민간 신앙의 중심 '용'

민간신앙에서의 용은 물을 지배하는 신이다. 이를 용신신앙(龍神信仰)이라 부른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 특히 농경민족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물을 지배하는 것으로 믿어지은 용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신라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각처에서의 지면 '용신제'는 용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적 의식이었다. 이는 농경의 절대적 요건인 물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도 농가에서는 음력 6월 15일, 즉 유두일이 되면 논외 물고에 보리개떡이나 밀개떡을 한 덩어리 찌다 놓고 마음속으로 풍년을 비는 일이 있는데, 이를 유두제 또는 용신제라고 부른다. 특히 마을대로 비를 오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조화능력을 지닌 수신(水神)으로서의 용은 가뭄 때 기우제(祈雨祭)의 주신(主神)이 되었다. 이미 신라시대에서부터 기우에 용이 등장되었던 사실은 여러 문헌과 민속적 신앙의 잔재를 통해에서도 살릴 볼 수 있다.

용은 농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민들에게 있어서도 어로신앙(漁撈神仰)의 중요한 대상으로서 숭배되어왔다. 용은 바다 밑 용궁에 살면서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으로 전승되어왔기 때문이다. 용왕은 안전한 항해와 조업, 풍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어촌의 부녀자들이 음력 정초나 2월초의 만조(滿潮) 시를 택하여 해변에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사해용왕에게 가족의 안전과 풍어를 용왕제를 올렸다. 또한 풍어제는 어촌의 전 주민들이 은갖 정성을 모아 어부들의 안전한 조업, 풍농, 풍어, 그리고 마을의 태평을 기원하는 집단의식으로 치러졌다. 이를 당국 또는 별신굿이라

하기도 한다.

## 불법의 수호자 '용'

불교에서 말하는 용왕, 용신은 천왕팔부중(天王八部衆)의 하나로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이다. 경전에 나오는 여덟 용왕은 난타(難陀), 발난타(跋難陀), 사가라(娑伽羅), 화수길(和修吉), 덕차가(德叉迦), 아나비달다(阿那婆達多), 마나사(摩那斯), 우발라(優鉢羅)는 불법을 수호한다. 이들은 불법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적시에 비를 오게 하여 오곡풍작을 가져오게도 한다. 특히 팔대 용왕 중의 사가라용왕은 바다의 용왕으로 기우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 이처럼 용이 기우의 대상이 된 것은 수증의 용궁에 살면서 구름을 부르고 비를 오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불법이 유행하지 않게 될 때 용왕은 용궁에서 경전을 수호한다고도 한다.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시 난타(難陀) 및 우라난타(優婆難陀) 용왕은 하강중에서 청정수(淸淨水)를 도하여 따듯하고 정량한 물을 태자의 몸에 뿌렸다는 내용도 잘 알려진 설화이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삼국통일 이래 독자적인 효국신앙으로 발전함에 따라 용은 호국룡으로 변화한다. 왕권과 호국을 기원하는데 용이 앞장선 것이다. 신라의 황룡사구층탑이며, 문무왕이 죽어서 태몽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이나, 민과식적에 얽힌 설화들에서 호국룡으로서의 용의 위상을 정립한다.

## 왕의 권위와 백성들의 수호자

용은 무한하고 경이로운 능력으로 위인과 같은 훌륭한 존재로 비유되면서 왕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알찌기 중국에서는 천자(天子)에 대하여 그 얼굴을 용안(龍顏), 턱을 용덕(龍德), 지위를 용위(龍位), 의복을 용포(龍袍)라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어 임금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졌다. 용은 균왕을 균왕은 하늘의 관계로 맺어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신앙으로 발전하여 호국룡사상(護國龍思想)이 발생하게 되었다. 용은 균왕의

상징하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농사의 수호신으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다. 유두제나, 단오절에는 용이 그려진 농기를 앞세우고 한해의 풍작을 기원했다. 또한 '개천에서 용났다', '동용문(登龍門)'과 같은 익숙한 말들처럼 용은 희망의 상징으로 민중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있다.

## 희망의 상징으로 용을 타고 오르다

용은 어디까지나 상상의 동물이다. 우리 민족은 일찍이 중국이 상상해온 용의 모습을 받아들였다. 거기에 불교의 수용과 더불어 인도의 불교적인 용의 모습이 겹쳐진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 스스로의 상상력과 창조력에 의한 또 다른 새로운 용의 모습이 탄생한다. 여러 동물의 특징적인 능력과 기능을 골고루 갖춘 용은 용비와 비상, 그리고 희망의 상징동물인 동시에 지상 최대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이러한 용은 구름과 비를 자유롭게 하는 수신(水神)으로, 불법의 수호 신중으로, 그리고 왕권을 수호하는 호국룡으로서의 우리와 함께했다. 용이 갈구하는 최후의 목표와 희망은 구름을 박차고 승천하는 일이다. 60년 만에 돌아온 흑룡의 해 총지중의 힘찬 도약과 교도님들의 가정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편집위원들은 사원했다.

취재 = 편집위원 이인성,박묘정,최영아  
통신원 박흥사 양재범  
정리 = 김중열 기자



불교민속기행<<

### 사찰의 작은집 삼성, 칠성, 산신각을 찾아서.... (산신신앙을 중심으로)

절집 안의 작은 집, 부처님을 모시는 큰집들은 사찰의 중심에 우뚝 서있고, 아침 저녁 예불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원래 그곳의 주인들은 뒤로 떨어져 사찰의 한구석에서 부처님을 바라본다. 부처님이 진리에 감화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준 이 땅의 산신, 칠성, 독성들은 불법을 지키는 호법신장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총지중보는 이분들을 모시고있는 전통사찰의 작은 전각들을 만나보고자 한다. 작은 집이 품고있는 이야기들을 찾아 임진년 한해 독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 이 땅의 주인들은 부처님의 신중이 되었다.



역불승유의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산지 가람은 불법을 이어오는 비장처로서 민중들의 서원을 기원하는 신행의 공간으로 그 맥을 이어 왔다. 요즈음 들어 도심 포교를 위한 현대식 사찰들이 속속 등장하고, 그 규모도 상당히 대형화 되어간다. 그러나 사찰의 기본적인 기능은 수행을 위한 도량으로, 그리고 신행을 위한 공간으로 전통을 지켜 오고있다.

### 산신신앙과 불교와의 만남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에는 여지없이 산신이 등장한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은 건국한 단군은 인간세상을 다스리다 1908년에 아사달에 물을 숭고고 산인이 되었다한다. 신라의 박해기세 또한 신도산 서술소설의 아들이라는 기록과 가야산의 산신인 정견모주(正見母主) 역시 가락국의 시조를 낳은 성모신(聖母神)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도 전국의 명산을 돌며 산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한다. 이는 산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개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신성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또한 신라의 석탈해는 동약(東岳山)의 산신이 되었다고, 김유신 장군은 대관령의 산신이 되었다고 전한다. 당대의 영웅들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산신으로 승화되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산천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였다. 이로 인해 과도한 제정의 지출을 아끼하기도 한다. 산신은 국가의 길흉을 관장한 것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농사, 기우, 건강, 개인적인 소원까지 기원하는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존재로 자리한다.

### 산과 함께 성장한 한국의 전통 가람.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은 대부분이 산을 끼고 조성된 산지형 가람이다. 물론 국토의 70%가 산과 지형이라는 반도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입지조건이라 할 수 있다. 불교가 이 땅에 처음 전파 될 당시에는 교화와 전교의 목적상 사찰은 사람들과 한가운데 위치한다. 고구려 372년(소수림왕 2년)에 불교가 들어와 375년에 조문사(尙門寺)·이불란사(伊弗蘭寺)가 창건되었고, 392년(광개토태왕 2)에는 평양에 9개의 절이 창건되었다. 백제 역시 왕성의 한가운데 사찰들이 건립되었다. 공주의 대통사지(大通寺址), 부여 정림사지(定林寺址) 등은 백제의 궁성과 그 위치를 같이한다. 신라도 초기 불교 전파 후 왕성을 중심으로 많은 사찰이 건립된다. 삼국유사에는 경주를 가리켜 '사사성장 탐탐안행(깊은 하늘의 별만큼 맑고, 맑은 기러기가 줄지어 서 있는 듯하다)'이라고 묘사했다. 그 만큼 많은 사찰들이 왕궁의 한가운데 지어졌다다는 사실이다. 그대표적인 사찰이 황룡사다. 지금은 사지만 남아 당시의 웅장했던 사원의 기종만을 짐작 할 뿐이다. 본격적인 산지 가람의 등장은 통일 신라 후대에 도입된 선종(禪宗)과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의 영향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수행을 목적으로사원은 그 구조를 바꾸어 나간다.



### 호법신중(護法神衆)으로 불법을 지키는 산신

전통적인 민간 신앙이었던 산신, 칠성, 독성은 원래는 불교와는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불교가 전래된 이후 호법신중(護法神衆)의 역할을 부여받아 신중의 일원으로 등장한다. 원래 신중은 인도의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다. 부처님의 법에 감화되어 호법신전의 역할을 맡았다 전한다. 이러한 신중은 부처님의 설법을 옹호하는 신으로 여러경전에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범천, 재석천, 인왕, 사천왕, 8부중, 12신장 등이 널리 신앙되어왔다.

경전에서 산신의 등장은 당역9권 화엄경에 등장하는 39위 화엄신중에 포함되어 있다. '화엄경' 제1 세주묘염품에는 석존이 성도를 이루자 수많은 보살과 신중들이 부처를 찬탄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화엄신앙에 비추어 보면 석존의 깨달음을 이룸으로써 모든 만물이 더불어 깨달음을 이루게 되었고, 이에 자연의 모든신들도 불법을 보호하는 신으로 채용되었다. 불교의례서인 안진호 스님의 '석문의법'에 나오는 104위 신중에도 산신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104위의 신중 뿐 만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토속신의 이름까지도 나온다.

산신은 신중의 일원으로 당당한 불교 사찰의 한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원래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외에는 모든 것을 사탄으로 규정하는 유일신론의 종교 전파 과정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어느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그 지역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어떠한 신앙도 배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 안음으로 부처님의 호법신장으로 도량 안에서 같이 지낸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원용유예의 발현인 것이다.

지금부터 전통 사찰 속에서 신중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신과 칠성 그리고 독성들을 만나러 갈까 한다. 부처님이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 함께한 신앙을 살펴보고 신중으로 모셔진 작은 집들을 찾아 가보자. (다음호에 계속)

김중열 기자



#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서울경인교구

지회장 김은숙  
총무 이인성, 이연수

## 부산경남교구

지회장 신인록  
총무 정남선

## 대구경북교구

지회장 김수자  
총무 이양숙

## 충청전라교구

지회장 민순분  
총무 이민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 불교 총지중 신정회 일동

#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동해중학교 이사장	의 강	이 사 김무남	교 장 장재계
이 사 법 공		이 사 정영문	교감직무대리 김진화
이 사 대 원		감 사 수 현	행정실장 석동훈
이 사 선도원		감 사 법 우	
이 사 인 선		감 사 박정선	
이 사 강경중			

교직원 및 행정직원 일동

## 총지중 총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불서**

『당신은 부처님』 ‘모두가 그대로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무비스님 저/ 불광출판사/9,000원

조계종 대강백인 범이사 무비스님이 『당신은 부처님』이란 제목으로 전국 각지의 법회, 인터넷 열화실 카페 등에서 주장해 온 인물사상(人佛思想,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는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한글로 정리했다. 무비 스님은 책의 서두에서 “다음에 부처라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 몸이 부처다. 깨치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 부처인 시대가 왔다. 지금 부처로 살지 않고 어느 세월에 부처로 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지금 바로 그대로 모든 사람을 부처로 삼기면서 살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지상에 평화와 행복이 온다고 역설한다.

무비 스님이 주장하는 인물사상이 스님이 새롭게 만든 불교가 아니고, 인물사상이야말로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바른 가르침, 즉 불교와 선불교의 핵심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법화경, 화엄경 등의 경전 말씀과 불교사에서 존경받는 달마 스님, 혜능 스님, 임제 스님, 영명 스님, 선철 스님 등의 가르침과 선시(禪詩)를 가려 뽑고 해설하여

인물사상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스님은 “알고 모르고, 미련하고 영리하고는 별 문제가 아니다. 등을 두드리면 돌아볼 줄 아는 그것. 그것이 곧 부처님의 능력이며 부처님의 신통통이다. 그 능력과 그 신통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 숨을 쉬는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는 신통이다. 그대로 살아 있는 부처님 활불(活佛)이요, 활신(活神)이다.

비록 살이 좀 찌거나 뼈 빠졌거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게으르거나 부지런하거나 너무 따지고 차별하지 말라. 그대로 모두가 광명을 놓을 줄 아는 아름다운 유정불(有情佛)이다.”라며 유정불(有情佛), 즉 ‘보살사람이 부처님’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물사상을 토대로 새로운

불교운동, ‘신대승불교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비 스님께서는 그토록 간곡하게 말하는 ‘사람이 부처님’임을 일깨워주는 인물사상은 이 시대 희망의 메시지다. 청년백수, 사오정, 노인자살인구 증가 등 사람의 존재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은 부처님과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소중한다는 말씀을 읽다보면 새로운 희망이 생겼는다. 스님께서 정리한 경전 말씀과 조사어록, 선시 속의 인물사상, 긍정적인 인간관은 그대로 삶의 희망이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존재의 실상을 아는 것만으로도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는 문을 열어 줄 것이다.

김중열 기자



유라시아 초원에서 환민도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는 겨울 방학을 맞아 ‘스키타이 황금문명’ 전시를 개최한다. 중,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동물문양과 황금유물로 기억되는 스키타이의 화려한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 스키타이족은 몽골계와 백인계의 혼혈로 이란 북부와 남러시아 일대 살았던 민족이다. 그리스인들은 폴리스시대부터 이들을 ‘스키텍’으로 부른다. 이후 ‘스키타이’로 불려진다. 중국에서는 진, 한 시대부터 이들을 ‘흉노’라 명하고 가장 두려운 북방 오랑캐로 여긴다. 스키타이인들은 흉누스계 몽골어족의 종족이며, 활을 잘 쏘며

마상기술이 뛰어난 유목민족으로 중국과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된 종족이다. 이 종족의 명칭으로는 스키타이, 훈족, 후니, 흉노로 불리어진다. 5세기 경 스키타이의 왕 ‘아틸라’가 탁월한 기동성과 발달한 활을 무기로 삼아 유럽으로 진격해 서쪽 라인강에서 동쪽 카스피해에 이르는 대륙을 이루었다. 그러나 453년 아틸라가 죽은 후 왕자들의 분열과 게르만 여러 부족의 반란으로 제국은 무너지고, 추해 연안으로 가서 다른 민족과 혼혈하고 동화됨으로써 민족의 전통이 사라져 버렸다. 이번 전시에 만나는 유물들은

**신라금관의 비밀, 스키타이 황금유물에서 만나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스키타이 황금문명’ 특별전 2월26일까지

우크라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역사박물관의 대표적인 소장품들이다. 스키타이, 사르마타 문화의 정수를 보여 주며 그 종류의 다양성과 문양의 풍부함, 260점의 수관 등 백방 유라시아 유목문명의 한국 역사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전시이다. 겨울 방학을 맞은 교도 자녀들의 역사 지식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예술의 전당=김중열 기자

**즐겁게 만드는 건강 요리**

**표고버섯 탕수육**

-신의 음식 표고를 만나다.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귀한 요리의 재료였다. 서양에서는 ‘Elixir of life(생명의 영약)’ 또는 ‘Food of the Gods(신의 음식품)’이라 불리우는 불로장생의 식품이다. 흔히 버섯이라는 말은 균사의 덩어리를 가르키며, 이를 자실체(子實體)라고 하는데, 자실체를 만드는 균류들을 총칭해서 버섯류라고 한다. 버섯은 나무에서 나는 ‘나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이나, 송이처럼 땅에서 나는 버섯도 버섯이라 부른다. 표고버섯은 원래 오염이 없는 청정장소에서 무농약, 무비료에 의해서만 재배가 가능하다. 섬유질, 광물질, 비타민 B등이 풍부하여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는 건강식품이다. 또한 음식의 맛을 좋게 해주는 천연조미료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고열에도 비타민인 손상이 적다. 신선한 표고버섯은 방석을 뜨고 같이 보송보송한 것, 것이 활짝 피지 않고 오투만고 두툽한 것, 그리고 그것을 잘랐을 때 보드득 잘라지면서 단면이 하얀것이 품질이 좋은 것이다.



**-표고버섯 탕수육**

탕수육은 튀김옷을 입혀 고소하게 튀겨낸 돼지고기나 쇠고기 위에 새콤달콤한 녹말 소스를 뿌려먹는 중국음식이다. 한국인들에게 탕수육은 추억을 간직하게 하는 음식이다. 요즘은 외식거리가 다양해져 요리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삼강학교에 입학식과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의 외식 메뉴는 단연, 자장면과 탕수육이었다. 그야말로 몇 년에 한번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인 셈이다. 이 추억의 음식이 최근 채식을 선호하는 불자들 사이에 인기를 대신한 표고버섯을 이용한 탕수육 요리를 즐긴다. 고열로 튀겨내어도 비타민인 파괴가 거의 없고, 혈액 순환을 도와 성인병 예방에 좋은 표고버섯 탕수육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일품요리가 되었다.

**-재료 준비**

표고 10장(건 표고로 약150g), 청경채 2줄, 오이 80g, 당근 50g, 소금, 후추, 달걀 흰자, 녹말가루, 튀김기름, 간장 1큰술, 설탕 3큰술, 식초 2큰술 1/2, 육수, 물냉마늘, 참기름

**-만드는 법**

- (1) 표고는 작은 것으로 준비하여 따뜻한 물에 담가 부드럽게 한 후 물기를 꼭 짜 둔다. 기름을 빼내고 소금, 후춧가루, 참기름으로 양념한다.
- (2) (1)에 달걀 흰자와 녹말가루를 넣어 반죽한다.
- (3) 기름의 온도가 1~0도씨정도 되면 (1)의 표고와 (2)의 새우살을 손가락으로 동글게 떠 넣어 튀겨 낸다.
- (4) 뜨거워진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배추, 표고, 오이, 당근꽃을 넣고 볶다가 끓는 물을 붓고 간장, 설탕, 식초로 간을 맞춘 후 물냉마늘을 넣어 걸쭉하게 한다.
- (5) 튀겨 놓은 표고에 참기름을 약간 쳐서 맛을 살린다.

**\* 주의할 점**

표고의 수분으로 튀김으로 할 때는 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수분 제거를 철저히 해야 안전하다.

**날마다 좋은날 청와대의 뜰**

총지사 교도 이지연

오늘은 청와대를 방문하는 날이다. 일찍 서둘러 새벽 3시에 일어나 아침점심을 하면서 청와대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환희한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서원 하였다. 수원에서 함께 가기로 한 분들께 추후니깐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시라고 연락을 드리고, 8시에 만나 경북공 동원 주차장 만남의 장소에 도착했다.

여기에서 서류심사가 확인되면 청와대에 차가 나와 우리를 태워 갔는데 이번에는 삼성관광차로 그냥 들어갔다. 불교단체의 방문이다. 나는 몇 번의 초청방문과 접수 방문을 해 본적이 있었다. 우리는 청와대를 둘러보는데 전에 없이 쓸쓸하게 느껴지며 가슴이 아려오는 것은 계절 탓인가? 어지러운 정세 탓인가?

그 아름답던 꽃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석막감마저 감도는 청와대의 뜰! 나는 희망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다. 부디 남은 암기등반 실타래처럼 영기고 설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잘 풀으셔서 어려운 서민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울 수 있게 달라는 기원을..

외로움과 안타까움에 가슴을 파고들며 울적 쓰린 마음이 머리를 아리게 한다. 얼른 마음을 바꾸고 같이 오신 일행

분들을 웃으며 바라보았다. 그래, 오늘은 함께 오신 총지종 가족들을 위하여 밝은 마음으로 보내자고 내심 마음을 추수했다.

그리고 점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어 할까 드시던 혼집 삼계탕을 먹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짜고 옛날에 그 국물맛이 아닌 것 같았다. 주방장이 바뀌었나보다. 어머! 우리 회장님께서 그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금일봉을 전해주시고 급하게 가셨다. 많이 감사하고 따뜻함을 느꼈다. 한참 시간이 지나 일행은 남산계이불가를 타고 장암인 서울 경관을 내려다보며 행복했고, 향기로운 커피향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신 주재 측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섯 분 모시고 갔는데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주재 측 분들은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함께한 정사, 전수님과 김성보살님, 손경숙보살님 그 외 모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즐거운 여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사히 마치고 회할할 수 있게 해주신 부처님께도 천배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부터는 더 새롭게 열정적으로 정진할 수 있기를 서원하면서, 행복하고 기쁨 넘쳤던 청와대 방문을 적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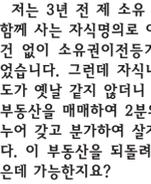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불가생활법률**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자식에게 이전한 부동산 소유등기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3년 전 제 소유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자식명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내외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최근에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2분의 1씩 나누어 갖고 분가하여 살자고 합니다. 이 부동산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하지요?

▶ 이상의 경우는 본인의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여의 의사나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이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풍경소리

행복의 지름길

지난간 일에는 후회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난간 일은 고칠 수 없습니다. 불행의 대부분이 후회에서 비롯됨을 아는 순간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또한 마참가지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 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선록 허자스님 (풍경소리 대표이사 / 도선사 주지)

가면 열릴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인 마승 비구가 있었다. 이런 성격을 잘 아는 부처님은 어느 날 그에게 임무를 주었다. "진내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가르침을 전하여라."

얼굴이 붉어지며 머뭇거리는 마승 비구에 다시 말했다. "반드시 자기에게도 남을 인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가거라. 용기를 가지고 가라. 가면 길은 열릴 것이다."

김원각(시인)

이달의 사진

사진은 조계사 김중열기사



마음은 엄매입과 해탈의 근본이다. 내용참조: 불교총진 p76 2월4 엄매입에 빠지면 눈뜬 정신이 된다.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최선인가?**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알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화형 이종석 지음  
432면 | 18,000원

# 내 인생의 멘토 붓다

Tel. (02)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 트위터: @bulkwang\_C | 페이스북: www.facebook.com/bulkwang | 블로그: blog.naver.com/bulkwang

이 글은 화령 교육원장이 지난 12월 22일부터 25일 까지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국제불교도우회(WBF) 대만지방 주관의 제2회 세계불교기업포럼에 참석하여 발표한 논설을 요약한 것이다.

# 환경보호를 위한 불교도의 실천 방안

불교 총지중 중앙 교육원장 화령 정사



현대사회에서의 환경오염과 지구 환경파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것에 대한 원인과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자제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 황폐해진 지구를 어떻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가이다. 특히 이 시대를 사는 불자로서 환경오염과 지구의 황폐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능하면 오염되지 않는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되고 있으며 경제 활동의 유일한 목적이 소비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남보다 비싼 물건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가운데서 자기만족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정신적인 충족감보다 물질의 소유와 소비를 통하여 만족감을 얻으려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의식이 점점 많은 재화를 생산하도록 부추기고 이러한 것이 자원의 고갈과 지구의 황폐화를 재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에 의한 지구의 황폐화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작으로 만든 결과이다.

우리의 물질에 대한 필요 혹은 탐욕을 기반으로 오늘날의 기업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활동이나 이들이 생산해 내는 제품,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 일차 생산품인 농수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들은 그 원료가 자연에서 채취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석유를 원료로 생산된 것들이기 때문에 생산품이 많아질수록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된다.

제품을 생산하는 이외에도 요즘의 기업은 서비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과대한 소비를 부추기고 끊임없이 물자를 소비하게 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이익의 극대화를 최대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무리 환경오염 물질을 생산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또한 기업의 구성원은 우리의 가족들이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하여 생활비를 벌고 그것으로 생활해 나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기업의 활동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회구성원이면서 불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현상들을 바로 잡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소비자 운동을 통하여 환경오염배출기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약 등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환경 오염 자체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각성과 자발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불자들이 먼저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개개인의 몇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학생제의 특성은 고스란히 먹는 자의 입으로 들어간다. 가족의 질병을 예방하고 학생제 등을 만드는 재료는 식유에서 나오기도 한다. 또한 가족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육류 대신 식물을 섭취하면 건강에도 좋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태우으로써 나오는 연기는 건강을 해치고 주위의 생물도 해치게 되며 대기중 오염시킨다. 나아가서는 수질도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라.

### 3.사치와 낭비를 하지 말라

▶ 필요 이상의 큰 집에 살거나 큰 차를 타거나 많은 옷을 소유하는 것도 자원 낭비가 된다. 큰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모되는 에너지도 결국은 지구를 황폐화하는 길이다. 큰 차를 소유함으로써 소비되는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자동차 경주나 오토바이 경주 등은 공해를 유발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가장 저열한 오락이다. 그리고 애완 동물을 기르는 것도 환경오염에 일조하는 것이다.

▶ 어떤 물건이던지 아껴야 한다. 아껴워서가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중생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아껴야 한다. 일회용 컵이나 용품은 가급적 쓰지 말라. 그러한 것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석유가 소비되어야 하며 또 그러한 것들이 버려졌을 때 토양과 물이 오염된다는 것을 생각하라. 실록 그러한 것들이 재활용된다고 하여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에너지의 소비는 막대하다.

### 1.음식을 절제하라.

▶ 과도한 음식의 섭취는 본인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의약품과 물자가 소비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의약품과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며 공해를 유발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비만한 사람이 감량을 하기 위하여 런닝 머신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전기가 소비되고 있으며 그러한 전기가 화력발전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대기오염을 촉진하는 것이 된다. 원자력발전이라고 해도 발전소의 핵폐기물은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적게 먹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라.

▶ 쓰레기를 줄여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욕심을 줄이고 소박한 삶을 꾸려가면 쓰레기도 훨씬 줄어든다. 쓰레기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사람이야말로 환경보호에 가장 앞장 서는 사람이다.

### 4.종교행위를 빙자한 환경오염을 염두에 두라

▶ 불교는 마음을 다스려야 복을 받는다고 한다. 종이돈이나 향을 태우으로써 복을 얻는다고 기대하지 말라. 부처님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셨을 것이다. 종이돈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숲이 훼손되어 하는지 아는가? 삼림의 훼손은 오존층 파괴의 가장 으뜸의 원인이다.



## 진언행자 생활광고

주방 생활가구 전문회사 화영기업(주)

**'나무촌' 관리실장 박인자입니다.**

틀에 얽매인 사고가 아닌 미래지향적 창조적 사고와 신뢰만이 생존의 기틀이란 신념아래 여래 '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곳은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싱크대, 불박이장, 신발장 도어만 교체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곡면 거울대리 299-1  
상담전화: 031-983-3524,3560 팩스:031-983-4080  
핸드폰: 011-706-4080 홈페이지:www.namuchon.com

아구찜, 꽃게찜, 간장게장 전문점

**풍원(豊元)**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대접합니다. 모든 분들을 최고의 VIP로 모시겠습니다. 단채 및 연회석을 갖추고 여러분의 모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곡동 8-4(오곡초등학교 맞은편)  
예약전화: 02-3401-5919

---

여러분들의 노후는 든든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삼성생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금, 의료실비, 종신 보험 등**

여러분 개개인에 맞게 설계해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화랑대지점  
파이낸셜 컨설턴트 강경민(총지사 교도)  
상담전화: 017-325-4248

생각더하기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기획, 분담, 자비, 인쇄, 출판등**

출판의 모든 형태를 수증있는 편집인들과 디자이너들이 각 분야에서 성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수준있는 대담, 윗문 작가 보유**

**3. 법보시용 서적제작**

법어집, 법문집, 찬불가집 각종 경전류 발간  
TEL : 070-4249-1987 www.mindplusbook.com

## 불교총지중 신입 종무원 공개채용

**정통불교 불교총지중은 (재)불교총지중유지재단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할 인력을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분야 : 일반행정직/홈페이지관리/사회복지사/종보기자
- 모집인원 : oo명
- 근무시간 : 주5일근무제
- 자격조건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만30세이하의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불교관련 경력자, 불교관련 학과출신, 불교신자,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최종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기타 자격증
- 급여조건 : 통리원 내규에 따름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불교총지중 통리원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2차 면접
- 접수마감 : 2012년 1월 31일
- 접수처 : (135-9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불교총지중 통리원 (tel : 02-552-1080~3)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불교총지중 통리원**